

“빌보드 100위 안에 진입하고 싶어”

그룹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윙스(WINGS)’ 발매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제목 ‘윙스 처럼 훨훨’ 제대로 날아보고 싶어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램몬스터는 1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규 2집 ‘윙스(WINGS)’ 발매 기념 간담회에서 “그간 음악적으로 잘 성장했는데 이번 앨범이 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날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윙스’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은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윙스’는 유혹을 만난 소녀들의 갈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앨범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피 땀 눈물’은 기존 방탄소년단이 그간 보여준 거칠고 강렬한 모습에서 조금 힘을 뺀 대신 섬세한 매력을 부각시켰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으로 주인공 ‘싱클레어’는 세계의 균열을 인식하면서 겪는 성장담을 철학적으로 담아낸 ‘데미안’에서 모티브를 얻은 앨범이다.

이 때문에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는 ‘데미안’을 읽는 열풍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고전문학을 읽게 하는 아이’를 부르는 별칭도 생겼다.

램몬스터는 “살다보면 크고 작은 유혹

을 만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고민하고 갈등 하는 자체는 성장 과정”이라며 “타인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방탄 스타일로 풀어냈다”고 전했다.

전작 미니앨범 ‘화양연화’ 시리즈로 청춘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다룬 방탄소년단인데 이번에는 ‘소년, 유혹을 만나다’를 테마로 노래했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슈가는 “현실에서 유혹과 갈등을 만나더라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편지 라인보다 메시지에 집중한 BTS 시어퍼 4를 리아나의 ‘얼브레드’, 비온세의 싱글 레이디 등의 프로듀서 트라키 시류어트가 만드는 등 앨범 스태프도 세계적인 진용으로 꾸렸다.

‘피 땀 눈물’ 역시 이날 공개 직후 글로벌 차트에서 선전했다.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에서 실시간 인기 차트 1위에 랭크된 데 이어 미국 브리짓, 캐나다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대만 등 23개 국가의 아이튠스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램몬스터는 “윙스’가 빌보드 200에 진입하면 K팝 그룹 사상 처음으로 세 번 연속이 차트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앨범을 낼 때



그들 ‘방탄소년단’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정규 2집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 국내의 차트에서 순위가 조금씩 올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뷁는 “빌보드 200에 순위 100위 안에 진입하고 싶고 국내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데뷔 4년차인 방탄소년단은 JYP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활약한 작곡가 방시혁이 자신의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차리면서 키운 그룹이다. 초반에 멤버들을 혹독하게 트레이닝시키기로 유명했다.

멤버 정국은 “데뷔 초에는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인기와 실력이 높아진 지금은 “멤버 한 명 한 명을 아티스트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다”고 감사해했다.

램몬스터는 3~4년 뒤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저희는 비슷한 세대와 시대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학생 때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이에 맞게 옆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고 달리면서 그때 그때 고민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생각해야죠.”

/뉴시스



전북체육회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성료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고 임실군체육회 전북종목단체가 주관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린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회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탁구, 축구, 테니스, 축구, 야구 등 8개 종목에 275개 클럽, 4,000여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각 종목별 왕중왕을 놓고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결과 게이트볼은 익산황룡클럽이 우승을 차지했고, 배드민턴 전주BA클럽, 배구 전주99클럽, 탁구 남자부 전주최길호클럽과 여자부 전주하진클럽, 축구 부안클럽, 테니스 완주포레클럽, 축구 익산옥아클럽, 야구 정읍 퍼펙트클럽이 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명실상부 동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대회”라며 “그동안 동호인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슈틸리케호, 오늘 이란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역대 전적 9승7무12패로 열세

슈틸리케호가 최종예선 최대 고비로 꼽히는 이란 원정에서 천금같은 승리를 노리고 있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후 11시45분(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4차전을 치른다.

지난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최종예선 3차전에서 카타르에 3-2 역전승을 거둔 대표팀은 2연승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4차전 상대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팀이다. 한국(47위)보다는 10계단이 나 높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이란에 9승7무

12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0-1로 패했다.

더욱이 이번 경기는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홈 텃세와 이란 관중들의 광적인 응원,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경기장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슈틸리케호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먼저, 슈틸리케호가 이란을 잡으면 최종예선 통과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노리고 있는 한국은 현재 2승1무(승점 7)를 기록 A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과 성적이 같지만 골득실이 +3, 한국 +2)에서 앞서 A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이 이란을 꺾으면 곧장 A조 선두로 올라선다. 이란전 이후에도 최종예선 6경기가 남아있지만, 일단 선두로 올라선 차후 승점 사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변제 과실은 이란 원정 징크스 탈출이다. 한국은 지난 지난 1974년부터 모두 6차례의 이란 원정을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웃지 못했다. 2무4패에 그쳤다.

이번 기회에 적지에서 승전고를 울린다면 40년 넘게 묶은 이란 원정 징크스를 떨쳐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란 원정 승리는 슈틸리케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지난해까지 승승장구했던 슈틸리케호는 최근 들어 도미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6월 유럽 원정에서 스페인에 1-6 참패를 당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달 최종예선 1차전에서 중국에 3-2로 간신히 승리한 대표팀은 A조 최약체로 꼽히는 시리아와 0-0으로 비기며 체면을 완전히 구했다.

여론의 질타가 매서워지는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으로서의 다가오는 이란전을 잡아낸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관건은 득점이다. 한국은 역대 이란 원정에서 경기당 0.5골에 그쳤다. 최근 두 경기에는 아예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이란은 우월한 신체조건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장점이다. 최종예선 3경기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을 달성했다. 공격수들이 활로를 찾아야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이 선봉장 역할을 맡을 공산이 크다. 윗등한 체격을 바탕으로 이란 수비진에 균열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원톱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공격 2선은 손흥민(토트넘),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창용(크리스털 팰리스) 조합이 유력하다. 세 선수 모두 득점력과 경험을 완벽히 공격전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김민근 기자



완주 상관체조팀, 에어로빅체조 경연대회 장원

지난 8일 임실 군민회관에서 열린 2016 에어로빅스 경연대회 가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완주군 상관체조팀이 전체 장원을 차지했다.

상관체조팀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활기찬 댄스 실력을 과시하며 장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전주시 무나체조팀과 장수군 에어로빅팀이 금상을 받았으며, 은상에는 완주군 용진체조팀, 정읍시 줌바스팀과 서인물팀이 차지했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에어로빅스 체조 종목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일상생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및 개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